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변명은
제 목	바야흐로 평생근로, 평생교육의 시대.		
<p>‘네가 가라 하와이...’</p> <p>나는 고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다. 고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바에야 등록금을 얹한 곳에 적선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렇다 보니 당시의 나는 후회는 물론 걱정도 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며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학급 인원의 7~8할이 대학 내지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였으므로 캠퍼스의 로망과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던 그들이 볼 때는 내가 별종으로 보였나 보다. 그런 내가 염려가 되었는지 내 단짝은 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있는 곳이 많으니 재고해 보라며 설득했다. 그러나 나는 등록금에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큰 손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편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진학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또한 날 비웃는 그들에게 차후 사회에서 자리 잡은 나를 보며 비(非)웃게 만들어 주겠다는 다짐을 아로새기며 그렇게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p> <p>‘선생은 괜히 선생이 아니고, 상사는 괜히 상사가 아니다.’</p> <p>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열심히 일했던 2010년 무렵의 교육당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문제의 대비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졸자 우대 채용’이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점점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아닌 실력 위주의 진정하고도 공정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미래의 흐름을 읽은 개척자로서 자부심과 만족감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통쾌했다. ‘내 판단은 역시 틀리지 않았어.’</p>			

회사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적응을 해 나갔다.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해도 다음 날 출근을 기다리는 열과 성의를 발산했더니 어느 새 능력도 인정받게 되었다. 선배들도 하나 둘씩 앞지르기 시작했다. “재가 개야?”라는 수군거림을 들으며 연예인의 느낌으로 ‘런웨이’를 걷듯이 출근도 해보았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흐뭇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전보다 결단력을 요구하는 많은 과업들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선배나 상사와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자신감을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일견 당연했으므로 단상에 오른 ‘마에스트로(Maestro)’가 되어 힘차게 지휘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출발은 순조로워 모두가 역시를 그리고 엄지를 연발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애석하게도 곧이어 뒤따른 결과가 내가 그릇됨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믿을 수 없었다. 당시의 나는 내게 조언하는 상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그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 이유로 말하자면 그 분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대학을 나왔다. 비록 직급과 경험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현명한 고졸자’로서 그런 길을 가지 않았고 결국 지금 당신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가 더 낫다 싶어 일종의 우월감 아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나의 오판을 증명해 버렸으니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언젠가 “발견을 위한 참다운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분이 자질과 능력이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주의를 기울여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안목과 사고의 깊이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내가 2수 앞을 내다보고 있을 때 상사는 3~4수 앞을 계산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학습 성과에 있어 보였다. **첫 번째로**, 인문학을 전공한 그분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인지 개인 시간을 할애해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책들을 곁에 두고 읽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사실 예비대학생에게는 취업이 어려운 탓에 ‘문사철(文史哲)’이라고 한데 묶여 기피되고 있지만, 학문(사회과학)의 위계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근본과도 같은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에 그때부터 역사서는 물론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들을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작게는 역사적 사실과 인간 관계론을, 크게는 사상을 비롯한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원리를 습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상사는 회사에서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등록금을 지원받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업무 스킬을 배양했다. 말

은 쉽지만 '주경야독(晝耕夜讀)'이란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인데 묵묵히 자신의 길을 만들고 또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결국 재학기간과 더불어 회의를 하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업의 본질을 꿰뚫는 예리한 분석과 결과에 대한 통찰이 날로 발전해 가더니 어느 날에는 업무보고에서 자신만의 명언을 만들어 내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결과 남들 보다 빠른 승진을 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는 존경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입학하여 '한양인' 이 되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건 그때 무렵부터 였다.

**'아는 것이 힘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하는 것이 대단하다.'**

초심자의 행운이란 것이 있다. 무언가 처음 배우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소득을 올릴 때 쓰는 말인데 꼭 내가 대학에 입학한 것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전술했듯 나는 상사의 사례를 보고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오프라인의 일반대학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원활한 학사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과연 사이버대학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더불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친 심신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 입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 후 학사일정의 흐름에 따라 신입생인 나는 수강신청을 위해 수업계획서를 열어 보고 맛보기강의를 들어 보았다. 40개나 되는 전공을 보유한 덕분에 다양한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전공에 구애 받지 않고 평소에 관심 있던 다양한 분야를 수강 신청했다. 물론 자신의 전공을 갈고 닦아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 안의 장인' 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요구되는 다른 분야와의 '융합된 지식'을 갖춘 통찰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한 나의 계산이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엘리트스포츠주의를 채택한 나라로서 운동선수들의 학업역량이 미진해 사회로 온전히 복귀했을 때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운동을 이어 나가려면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해야하는데 그렇게 운동에만 전념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이 스포츠성적이 낮지는 않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 있다. 다른 분야를 잘하면 그에 비례하여 내 분야는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덧 3월이 되었다. 학기가 열려 나는 신입생으로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배움의 끈을 놓은 지 시간이 제법 흘렀기에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품고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신을 한데 모았다. 대학 수준의 강의인 만큼 쉽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이해를 도와주시는 교수님과 조교님의 도움에 학업역량은 계속 '우상향곡선'을 그리며 올라갔고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면 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에 최선을 다해 결국 좋은 성적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배움을 이어 나가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내가 고등학생 때 영어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들리는 것이니 어휘와 문장을 열심히 암기해야 한다." 영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학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말은 꼭 맞았다. 그 후에는 배운 것들을 갈고 닦아 본질과 원리를 깨달아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업무에 대한 기획 절차부터 집행과 성과집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배우지 않았어도 배운 것을 토대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에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척척 진행해 나갔다. 결국 이어진 결과는 다행스럽게도 예상을 웃돌았다. 더불어 기획 및 분석력 그리고 통찰력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냈음을 나는 물론 세상이 알아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예전의 신뢰와 명성을 되찾았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찾으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자신의 연구업적을 쉽게 전달해 주시니 교육이란 것이 참으로 효율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됐다. 나는 그 후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명문대학이 아니라면 혹은 대단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주창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 배움이란 의식주와 동급의 필수요소다. 고등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되도록 마쳐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반드시 오프라인의 일반대학에 진학할 필요는 없다. 실력 있는 교수진들을 보유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양질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이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정말 기회가 넘치는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군주(君主)도 필부(匹夫)도 결국 자기 자신 하나만 잘 다스리면 된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걷는다면 찬란한 태양은 언제나 우리를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태양이 되어 다른 나그네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공헌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바야흐로 평생근로, 평생교육의 시대’

누군가 말했다. 배움의 끈을 놓은 자는 더 이상 과거에 살아갈 지식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인생은 눈을 감기 전까지는 무한한 경쟁의 연속이다. 남보다 나은 점이 없다면 외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인생 초반부에 신규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업무스킬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그 이후에도 눈을 감을 때까지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통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로 인해 인생의 초반부에는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후반부에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질병의 예방 그리고 자신의 앎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언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배움을 이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종래에 들어서 은퇴자들은 집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간단한 소일거리라도 하며 삶의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 바야흐로 평생근로의 시대다. 같은 의미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본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방송대에는 10여개의 학사학위를 가진 학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를 본받아 뒤따라가야 한다. 나 스스로는 물론 지인들에게도 적극 권유해 모두 함께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면서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이다.